

도의회 상용차 건의안

# 현대차 전주공장 물량 확보 기여

건의안 발의 두세훈 도의원 "환영" 뜻 밝혀  
전주공장, 26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리아 생산



올 초, 전북도 의회가 발의 한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전주공장 스타리아 8,000대 생산 물량 확보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전북도의회는 생산량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전북 상용차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두세훈(더불어민주당, 완주2)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내 상용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친환경차 신산업 전진기지로의 활용과 새로운 차종의 전주공장 생산 및 노사정협업 체계 구성을 정부와 현대차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난해 가동률이 40% 이상

로 추락해 IMF 때보다도 못한 생산량으로 노동자들이 순환휴가와 교육, 그룹사 진출 등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전주공장은 그동안 물량이 없어 울산, 아산, 남양, 기아차 광주공장까지 노동자를 전출 보내야 했고, 임금 부족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린 상태였다.

건의안에는 현대차가 지난 4년간 노사합의에 따라 픽업트럭 등 신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 중·대형 트럭 및 버스를 생산하던 전주공장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소형 상용차 스타리아를 생산하게 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생산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한 두세훈 의원은 "상용차산업은 전북과 완주 지역경제의 근간이다"면서 "수입차에 잠식당한 국내 상용차 기술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친환경차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에 투자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렛츠런팜 장수목장 경마장 유치해야”

전북 시군의회의장들, “장수, 경마산업 성장 최적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 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1일 장수군의회의에서 제28차 월례회를 열고 렛츠런팜 장수목장 내 경마장을 유치하도록 촉구했다.

협의회는 “렛츠런팜 장수목장 경마장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은 5개 시·군으로 연계된 말산업 특구로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현재 말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며 “장수군은 렛츠런팜 장수목장을 비롯하여 한국마사고, 승마 레저파크 등 말산업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경마산업 성장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렛츠런팜 장수목장

내 경마장 유치는 지방세수 증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팜 장수목장 내 호남지역 제5호 경마장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렛츠런팜 장수목장은 승용마의 생산과 육성·조련을 통해 경주마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경마 사업을 지원 하는 후방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동화 회장은 “렛츠런팜 장수목장 경마장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전북 말산업의 도약은 물론 전북 시·군의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자치경찰 유공자들에게’ 전북도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경찰청 교통과 경감 이광열,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최은희,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서상훈 등 대표 수상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미래차 산업 전환, 신속·과감하게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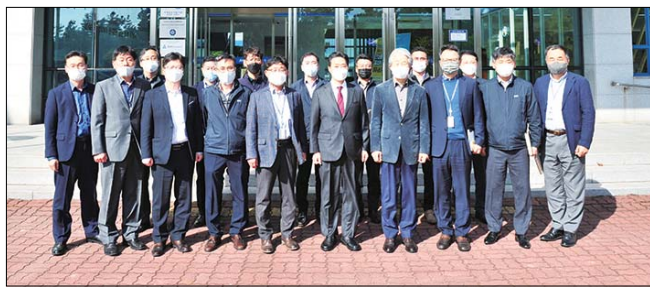
신원식 도정부부지사  
자동차산업 현장 점검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21일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주행시험장’을 방문해 미래차 전환을 대비하는 전북의 자율주행차 실증기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한 신원식 부지사는 전북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원이 전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성능 시험 등 시설을 점검하고,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원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사장인 신원식 부지사의 주제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이사회에서는 3명의 선임직 이사 선임과 기술원 정원에 자율주행차 분야 전문가 2명을 증원하는 안등을 처리했다.

이사회 후에는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21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을 찾아 전북의 자율주행차 실증기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새만금주행시험장’을 살펴보고, 상용차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신원식 부지사는 “미래차 산업 전환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의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지사로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저속 자율주행 기능검

증을 위한 ‘새만금주행시험장’을 구축하고, 고속 성능검증이 가능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의 최종단계인 실험도로를 활용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되며, 추진이 확실시돼 상용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북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처우 개선

윤준병 의원,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

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고,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유호상 기자

## 김수흥 의원 “지방 강소도시 육성으로 균형추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1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흉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방 강소도시 육성으로 균형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 반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 100대 도시 가운데 20~30만 인구 규모의 중소도시가 61개나 있고, 이들 도시가 교육, 산업, 주거, 교통의 중간축으로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광역시와 특례시 같은 극소수 도시를 제외하면, 축소 혹은 소멸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마구잡이식 외곽지역 개발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중이다”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아무리 해도 인구 감소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김윤덕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정치적 논란 없어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공학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를 조기에 마감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은 정치적 논리와 표 쟁점을 떠나, 합리적인 사업의 경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독려해주시고 특히, 정부의 핵심과제 ‘그린뉴딜 사업’의 중심자인 새만금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김명병 의심되면 ‘1339’로

농업  
농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축! 전주매일 창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여러분의 결연 늘 농협이 함께합니다

◆ 장수군 농협 청년 조합원 모집

대상 : 1977.01.01. 이후 출생자  
 자격 : 일정규모 이상 농지 및 작물을 재배, 경작하는 자  
 (세부내용은 관내 농협에 문의)

○ 조합원 혜택

금융 - 출자금 비과세, 예적금 비과세, 보험, 영농자금 대출 등

배당 - 출자금 배당, 이용고 배당  
 기타 - 농자재 구입, 농업관련 교육, 농산물 출하 및 판매 교육지원 사업

관할농협 : 장수농협(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농협(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장수군 농협일동

가입문의    장수농협 ☎ 063) 351-5185  
                   장계농협 ☎ 063) 351-0056

•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장길환    • 장수농협일동조합 조합장 김용준    • 장계농협일동조합 조합장 광점용